

1962年の 圖書館界 概括

金 錫 淳

1962年을 보내며 우리나라 圖書館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때 일이 茂盛한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것 같은 서운한 생각을 감출길이 없다. 아무런지 努力에 비해 收穫이 적은 해였다.

1962年은 백허의 해 아닌 圖書館法 制定의 해라고 크게 期待하였지만 이 念願은 이루어지지 못한채 다시 해가 저물어간다. 今年은 空轉의 해요 惡循環의 해였다. 政府機構에 圖書館局이나 課가 생겼다는 뉴스도 없었고 解放後 踏步狀態에 있는 公共圖書館數가 大幅 增加되었다는 朗報도, 大學圖書館의 豫算이 몇 배 늘었다는 말도 없었다 司書教師職制가 確立되었다는 消息이나 司書職을 一般 事務職員보다 優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圖書館界의 自體의 成長은 많았다고 하겠다.

資料出刊事業에 있어서 延世大學校 圖書館學叢書 (No 10.) (No 11.) (No 12)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또 圖協에서 圖書館 用語集과 目錄規則이 出刊 되었으니 그 收穫이 가장 많았던 해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清涼劑는 울여름에 열렸던 圖書館大會다. 이것은 確實히 大會 産婆役을 한 圖協의 히트였다. 社會的으로 그만큼 頭角을 내밀고 氣勢를 올렸다는 데 커다란 意義가 있었다 할것이다. 또하나 마을文庫를 비롯한 農村讀書運動이 注目을 끌었다. 文化의 惠澤이 적은 農村에 讀書施設을 마련해 주는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適切한 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仁川市立圖書館의 躍進이라던지 몇몇 圖書館에서의 이룩한 成果는 主로 熱意있는 開拓者들이 흘린 피땀의 結晶이었다.

一. 館界의 動向

館界의 動向에 對하여는 部門別로 評論되겠지만 여기서는 概括의인 움직임을 鳥瞰하는데 그치려 한다.

먼저 今年度의 公共圖書館界를 돌아볼때 政策의 貧困, 認識不足, 財政難, 人材難, PR의 缺如等으로 依然 沈滯狀態에서 延命하는 程度였다. 도대체 數에 있어서 市, 都, 郡만도 400이나 되는 나라에 公共圖書館이 겨우 20個이니 더 말할餘地가 없다. 호랑이가 나오는 東南亞의 後進國 馬來에 公共圖書館이 百餘個인것에 想到할때 圖書館 20個를 가지고 어떻게 半萬年의 文化民族이라고 큰소리를 칠 수 있을까? 今年에 公共圖書館으로는 단 한군데 華川에 郡立圖書館이 新設되었다는 奇蹟(?)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 不毛地에서도 仁川市立을 비롯한 數個 圖書館의 面貌가 現代化한 것은 꼭 鼓舞的인 일이었다. 今年에 公共圖書館界로서 特記할 일이라면 仁川市立의 新築 光州市立의 落成 大邱市立의 擴張 釜山市立의 新築着工 華川郡立의 新設을 들수 있을 것이다.

다음 大學圖書館界는 어떠한가? 大學圖書館의 當面問題는 豫算增加 資料의

充實, 司書職의 優待, 人員增加, 聯合目錄 相互貸出等이라 할것이나 그런것들에 對한 大學當局의 態度는 대체로 馬耳東風格이 었다. 各大學의 募集定員 減少로 經營이 困難하게된 私立大學에서는 圖書購入에 더욱 吝嗇해져서 年間 購入費가 많아야 2百萬元程度나 어느 歲月에 大學圖書館 다운 資料가 모일것인가? 今年에도 大學基準令에 到達할 量의 圖書를 購入하는 努力만은 如前하였다. 그러나 資料整理業務는 相當히 進陞되었다. 地方에서도 現代圖書館으로서의 指向이 뚜렷해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여러 大學에서 視聽覺 資料具備에 힘써 새로운 奉仕를 하게된 것은 資料센터로서 進一步한것이라 하겠다.

學校圖書館分野에 있어서는 몇분의 熱意있는 活動으로 一般의 認識이 매우 增進되었고 延大와 梨大가 實施한 司書教師 講習會에서 修了生을 多數 輩出한것은 學校圖書館의 質的向上에 寄與하였을줄 안다. 그러나 依然히 根本的 問題인 司書教師의 職制確立이 實現되지 않았기 때문에 司書教師資格者나 大學 圖書館學科 出身者의 進路가 열리지 않고있다. 豫算問題도 隘路가 많았으며 司書教師의 일을 보는 大部分의 教師들이 一般教師와 거의 같은 授業時間을 擔當하고 있어 學校圖書館業務에 充實할 수 없는 實情이었다. 今年 學校圖書館 分野에 서의 플라스는 司書教師講習會를 거친 圖書館同志가 增加된 것과 學校圖書館 다운 面貌를 갖춘 學校가 不少하였다는 點을 들수 있을 것이다.

다음 特殊圖書館은 比較的 平穩히 發展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圖書館을 四個部門으로 나누어 公共, 大學, 學校圖書館의 3個部門을 除外한 各種 圖書館을 特

殊圖書館으로 묶어 버렸는데 特殊圖書館中에는 最高會議圖書館 軍部圖書館 銀行圖書館等이 活潑한 便이었고 韓國研究院에서도 意義있는 일을 하였다. 今年度 圖書購入費만해도 工業研究所圖書館이 1百20萬원 國防大學院圖書館이 1百60萬원 原子力研究所圖書館이 百萬원 外務部圖書館 2百萬원 陸軍技術研究所가 2百萬원 陸軍大學이 1百30萬원 最高會議圖書館이 2百萬원 韓國研究院이 2百萬원으로 特殊圖書館은 總體的으로 云謂하기 어려우나 公共圖書館界보다 훨씬 活潑하였다. 이 中에는 最高會議圖書館처럼 國民에게 直接 奉仕하는 圖書館도 包含되어 우리나라 圖書館分類가 좀 模糊한것 같다.

二. 圖書館協會의 活躍

우리나라에 있어서 圖書館運動의 中心은 圖書館協會라 할것이다. 協會는 圖書館法推進의 本山일뿐 아니라 圖書館統計作成 圖書館資料刊行 圖書館講習會 讀書週間主催 出版物國際交換業務 圖書配付業務 圖書館部門의 國際活動等 許多한 業務가 가로 놓여있다.

今年에 圖協이 이룩한 業績으로 첫째 昨年 6月以來 中斷되었던 機關誌 "도철월보"가 4月부터 順調롭게 發行된 것은 多幸한 일이었다. 機關誌는 圖書館界의 動向을 傳하고 相互 紐帶를 強化하는 媒介의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圖書館大會를 여는 產婆役을 하였다는 點이다. 피마의 教育使節團에서 經費 3分之 2를 負擔한 이大會는 7月 21, 22 兩日에 걸쳐 中央教育研究所와 崇義女高講堂에서 開催되었는데 全國에서 250餘名의 圖書館人이 有史以來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館務部會 및 全體會議을 통하여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總決算과 아울러 앞으로의 進路에 對한 摸索이 眞摯하게 論議되었다. 셋째 圖書館實務講習會를 文敎부와 圖協共同主催로 11月 5일부터 15일까지 11日間에 걸쳐 延大圖書館에서 開催하여 專門班 34名 普通班 78名의 修了者를 내었다.

그밖에도 年例行事인 讀書週間 主管이나 出版物國際交換業務等 많은 일을 하였다.

다음 圖協業務中 가장 重要한 部門을 맡은 技術委員會에서 지난 5월에 現下圖書館界에 山積해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時急하고 重要한 일, 用語集의 編纂과 目錄規則의 制定을 今年事業으로 採擇하여 用語分委와 目錄分委로 나누어 着手하였다. 애당초 計劃은 10月中에는 두가지 다 出刊할려던 것이 그時일이 조금 遲延되어서 年末에는 委員들이 合宿을 하여 가면서 強行한바 1963年 總會前에 發刊하게 되었다.

圖協은 이처럼 重要한 일들을 擔當하고 있으나 財政難으로 隘路가 많았다. 文敎部の 보다 積極的인 뒷바침이 要請되매 則 圖協의 補助金을 削減하는 것과같은 處事는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圖協은 봄의 播種期를 지나 여름의 成長期에 들어섰다. 圖協을 育成하는데 館界가 結束해야만 하겠다. 1963年이 야말로 飛躍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多幸히 文敎部の 補助金이 大幅 增額되었다니 모든 면에서 굳건한 土臺를 마련해야 할때에 이르렀다.

三. 圖書館法の 歸趨

우리나라 立法史上에 圖書館法처럼 難航을 거듭하는 法案은 드물 것이다. 館界

가 救世主처럼 待望하는지 荏苒 8個星期 圖書館協會의 創立과 더불어 들고나온 問題가 政權이 몇번 바뀌어도 아직 結實을 보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今年 7월에 열렸던 圖書館大會 公開討議席上에서 圖書館法推進問題를 論議한바 있거니와 이 問題는 圖協創立以來 每年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實로 數 10회에 걸쳐 檢討되고 決議되고 建議하였지만 政府나 立法府는 이 咀呪받은 法案에 對한 關心이 極히 稀薄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圖書館界로서는 法草案만도 十指에 꼽도록 作成하였고 人的 動員과 時間消費가 莫大하였다. 때로는 國會에서 正式議題로 採擇된 일도 있었지만 政客들의, 구물이 없고 골치아픈 法案이라 하여 政爭의 틈바귀에서 壓殺되고 말았었다.

圖書館法 推進에 가장 希望的인 時機가 到來하였다고 생각된 것은 5·16革命이었다. 왜냐하면 革命政府와 立法機關인 最高會議가 우리의 後進性을 脫皮하기 爲하여 焦眉의 急을 要하며 누구나가 渴望하는 이 圖書館法을 通過시키는데 인식하지 않을 줄 믿었기 때문이었다. 政爭이 없고 團結이 잘되는 立法機關이니 一瀉千里로 通過되기를 바랬으나 亦是 그렇지 않았다 圖協이 主動이 되어 館界가 總動員態勢로 臨했지만 이해도 그냥 넘어가는 모양이다 새삼스럽게 圖書館法이 制定되어야 할 理由를 들 必要는 없다. 우리나라 實情으로 是 圖書館法으로 圖書館設置를 規定해야만 圖書館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特히 公共圖書館에 있어서 그렇다.

圖書館法の 通過를 보지 못한 이해는 館界를 爲하여 어두운 해였다.

四. 그밖의 일들

今年에 館界로서 펴낸 것은 1956年 10월에 韓國에 와서 圖書館事業을 도와준 피바의 教育使節團이 지난 8月까지에 그 事業을 마치고 本國으로 撤收한 일이다.

그리고 今年에는 圖書館界의 貴賓이 몇 분 다녀갔다. 即 A guide to reference books의 著者 winchell 女史와 sears 主題名 標目表 最新版의 編者 Frick 女史가 4월에 다녀갔고 南加洲 大學 圖書館長 李基俊氏가 같은달에 來韓하였었다. 또 8월에는 하바

드大學 燕京學社圖書館 韓國責任者인 金 聖河氏가 다녀간 일이다.

以上 今年 圖書館界의 概況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무엇인가 두드러진 일이 일어나고 刮目할 發展이 이루어질 것같은 1962年이었으나 成長은 하였을망정 期待는 어긋난 해였다.

5年計劃에 步調를 맞추어 여러가지 計劃이 樹立되어 있으므로 1963年은 거어코 圖書館最高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절하다.

(筆者 建國大學校 圖書館副館長)

연세대학교 도서관학 총서

- | | | | |
|---|------------------------------|------|------|
| 1. 주제명 목록의 연구 | 이 재 철 | 1959 | 100원 |
| 2. 분류목록 | Robert S. Burgess | 1960 | 60원 |
| 3. 간이 도서관자로 목록법 | Susan G. Akers 著
김 중 한 역 | 1959 | 140원 |
| 4. 중국, 일본, 및 한국자료의
목록을 위한 예비규칙과 편람 | 미국 국회도서관 편역
백 린 역 | 1959 | 40원 |
| 5. 두이 십집 분류법 | | 1959 | 100원 |
| 6. 司書教師 핸드북 | Mary P. Douglas 著
金 泰 律 역 | 1961 | 140원 |
| 7. 주제명 표목록 | 이 재 철 | 1961 | 500원 |
| 8. an Index to English language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1890—1940 | J. mcree Elrod | | |
| 9. 圖書館學概論 | Pierce Butler 著
劉 永 玟 역 | 1961 | 100원 |
| 10. 奎章閣藏書에 대한 研究 | 白 麟 | 1962 | 250원 |
| 11.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諸問題 | 千 惠 鳳 | 1962 | 250원 |
| 12. 圖書館의 管理上 組織 | 明 在 暉 | 1962 | 150원 |